

---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

---



고령군의회

#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성낙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군립요양병원은 지난 200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위탁을 맡았던 영암의료재단이 매월 2천만 원 이상 적자 발생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마지막 위탁 기간이었던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계약기간을 끝으로 수탁자를 찾지 못하여 고령군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령군 직영 운영의 명분은 실제 요양병원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면서도 수탁자는 계속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직영을 하면서 위탁자를 찾기 위해 작년 몇 차례 공고를 냈지만, 응찰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 군립요양병원의 병상은 87병상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87병상이라는 병상 수는 수익을 내기에 부족한 병상 수이기 때문에 위탁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고령군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치매 안심 공모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신청했으며,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병상수를 97병상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공모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수탁자를 모집하여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병상을 늘리기 위한 증축 공사가 추가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305회 임시회 당시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우리 의회는 시설 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고령군이 아닌 응찰하는 수탁자가 주체가 되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설명에서 추가적인 부지 매입이 없다면, 증축에 한계가 있어, 기존 부지로는 최대 91병상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축 공사를 하는데 87병상에서 91병상으로 단지 4병상 늘리는 것이 적자 개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91병상만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참여할 새로운 수탁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군립요양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계속 영암의료재단에서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급식실 등 시설의 상당 부분을 영생병원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가 참여하더라도 영생병원에서 운영했던 만큼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군과 비슷한 상황인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남 거창군은 군립노인요양병원을 재정적 어려움과 수탁자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2023년 5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직영 전환 이후 입원 환자 수가 2023년 5월 기준 67명에서 같은 해 11월 100명을 넘겼고, 2024년 3월에는 110명을 초과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거창군은 직영체제로 돌입하면서 TF팀을 구성하고, 병원 필수인력 채용, 노후시설 보강 및 의료장비 교체 등 병원 환경 개선 조치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2025년에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 위탁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고령군과 거창군은 지리, 인구 구조, 병원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군립요양병원 직영 운영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우리군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당장 수탁자를 찾기 어렵고,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군립요양병원 경영주는 고령군임을 받아들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령군에서는 수탁자를 찾을 때까지만 잠깐 임시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월부터 군에서 직영하면서 파악한 요양병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직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신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